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전남도사회서비스원(원장 강성희)은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비스원 소속 시설직원들과 목표(자유시장), 나주(목사골시장), 순천(아랫장) 등 전통시장을 찾아 점심을 먹고 장을 보는 '전통시장 친환경 장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사회서비스원은 또 도민들을 대상으로 청렴

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전개했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기관의 이미지에 걸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ai@kwangju.co.kr

김동진 광주대 총장, 학군사관후보생 격려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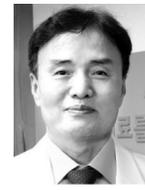


김동진 광주대학교 총장은 지난 20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를 방문, 기초군사훈련 중인 2학년 학군사관후보생들을 격려했다. (사진)

김동진 총장과 교수진(김찬환, 백중순, 이호재, 김병목)은 이날 방학 기간 기초군사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학군사관후보생들과 학군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정예 장교로서 갖춰야 할

전문지식과 인성교육을 통한 기본 소양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상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대 학군사관후보생 9명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4주간 장교로서의 기본 소양교육과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교육종료 후 3학년 사관후보생으로 정식 입단하게 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병원, 법무부 선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조선대병원(병원장 김진호·사진)이 지난해 말 법무부로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됐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인원 대비 불법체류자 발생 건수 ▲초청(진료)실적 ▲우수 유치사례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조선대병원은 평소 의료관광객 유치 및 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증서를 받았다.

이번에 지정된 의료기관은 조선대병원을 비롯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중앙대학교 병원 등 모두 39개 병원이다. 한편,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유효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에 김수정 변호사 선정

김수정(사진) 서술지방법원소속 변호사(연수원 30기)가 '제6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광주지방법원(회장 장정희)은 21일 광주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8차 정기총회에서 김 변호사에게 인권상을 시상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호주제폐지 위헌소송 공동대리인, 낙태죄 위헌소송 공동대리인단 단장, 양성적병역거부자 변론 및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에 참여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썼다.

또 1970-80년대 20여만 명의 아이들을 해외 입양 보내는 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을 규명하기 위해 추방된 해외입양소송, 실종아동 불법해외입양사건 국가배상소송 등을 진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분야 전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비서실장, 한국여성의



전화연락 전문위원 등을 맡은 김 변호사는 23년 동안 양심의 자유, 여성 및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변론과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에는 법조협회 법조봉사대상, 2020년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대상, 2019년 양성평등진흥공공자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했다. 한편, 지난 2018년 광주지방법원(회장 장정희)은 평생 인권옹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바친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업적과 뜻을 계승하기 위해 만든 상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사회정의 실현 및 공익활동에 헌신한 변호사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 치하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신협, 목포공업고 축구부에 후원금 전달

목포신협(이사장 조성철)은 최근 목포공업고등학교 축구부에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신협 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김영하 본부장, 목포신협 조성철 이사장, 목포공업고등학교 박상춘 교장 등이 참석했다. 신협중앙회는 목포신협과 함께 2020년 목포연동초등학교 축구부 후원을 시작으로 목포공업고등학교 축구부,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배구부까지 지난 6년간 총 4000만원을 후원했으며 목포지역 학교들의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달된 후원금은 목포공업고등학교 훈련용품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미례 호남대 교수, 광주전남상담학회 회장 선출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미례(사진) 교수가 광주전남상담학회 1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 김미례 신임 회장은 "광주전남상담학회는 광주전남지역 내 상담 전문성 유지와 향상을 위해 학술행사, 교육연수, 사례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 간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상담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전남상담학회는 3153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상담학회 산하 지역 분과학회로 광주·전남지역의 상담 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문 학술단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출력(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친절한 선주씨(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5 KBS 뉴스	30 신데렐라 게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비상계엄 내란 혐의 국정조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비상계엄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청문회	30 요리리리 맛있는 수업
11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수목드라마 수상한 그녀(재)		00 애니갤러리 30 안방 자두야 6 45 위시켓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장애 인식 개선 프로젝트 희망 노트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지명수배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05 설박사의 세계사 대모험 2(재) 25 한글용사 아시아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초이스 30 비상계엄 내란 혐의 국정조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내 비밀친구 행씨(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스튜디오 K 스페셜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00 Why? 15 다이노 파워즈 4 30 꽃영양화가 좋다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류류달빛 공연 스페셜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토크멘터리	50 신데렐라 게임	05 친절한 선주씨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10 어쩌다 마주친 퀴즈 30 결혼하자 맹공야!	30 슈퍼맨이 돌아왔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수목드라마 수상한 그녀	0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KBS 뉴스라인W		30 라디오스타	40 SBS 스페셜 45 강단과의 전쟁(재)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스튜디오 K		50 휴먼토크 호남, 호남인(재)
12	00 KBS 중계식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40 영상앨범 산(재)	15 모델 캘리포니아(재)	2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50 보물지도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8:1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30 박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3(재)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9:20 고향만국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PD로그(재)	19:50 귀하신 몸(재)
07:0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이렇게 떠나볼까? 캄보디아 -물 위에 산다. 캄퐁차낭>
07:15 무지개 강아지 달린의 모험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1:35 한국기행 <우리는 아날로그로 간다 3부 뜨거운 찻물처럼 살아보리>
17:3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21:55 왔다! 내 손주
07:45 하프와 친구들	15:1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22:45 EBS 스페이스 공감
08:00 당동댕 유치원	15:55 블록스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8:20 안전초코 핫초코	16:10 당동댕 유치원(재)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08:50 도래미 프렌즈	16:30 페파 피그	24:40 EBS 비즈니스 리뷰
09:05 골짜기와 처음 수학	16:40 마사와 곰	
09:20 탐골스타 개칭(재)	16:55 하프와 친구들(재)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7:10 안전초코 핫초코(재)	
10:30 한국기행(재)	17:40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2일 (음 12월 23일 辛卯)	☎ 010-9790-8237
36년생 서술은 생략하고 한시바빠 본론으로 들어가야 좋다. 48년생 걸음으로 드러나지 않은 현상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60년생 정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처지에 서게 된다. 72년생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할 때다. 84년생 직접 표현하는 것보다 우회해서 비유함이 더 낫다. 96년생 단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행운의 숫자 : 26, 90	37년생 쉬 더운 구름이 쉬 식는 법이다. 49년생 천지의 기운이 도우니 기탄없이 도모해도 된다. 61년생 판도를 쉽게만 본다면 많은 취약점들을 간과하게 되느니라. 73년생 변함없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85년생 이번까지 살펴본 후에 판단할 일이다. 97년생 우선 잘 적응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43, 53	42년생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제스처와 채널이 절실히 필요하다. 54년생 파격적인 변화의 추구가 생산성을 도모하리라. 66년생 눈먼 거북이가 우연히 뜬 나무를 만나는 격이다. 78년생 기존에 해왔던 바다로 정진하던 희망이 보인다. 90년생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우회하는 길이 오히려 빠르겠다. 02년생 빗뚝을 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9, 70
38년생 현재 드러나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불안정하다. 50년생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보자. 62년생 재물이 즐비하니 취하는 이만인 임자가 되리라. 74년생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어 있다. 86년생 진중하게 견지한다면 마침내 성취하리라. 98년생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합리적이다. 행운의 숫자 : 15, 74	39년생 내용이 알차야겠지만 시기를 맞추는 것도 요한다. 51년생 상태는 양호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63년생 서로 뜻이 어긋나지 않을까 두렵다. 75년생 좀 더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면 쉽게 유리한 점을 획득할 수 있다. 87년생 생 계획대로 추진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99년생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모여들겠다. 행운의 숫자 : 16, 95	43년생 숙원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55년생 핵심 가치를 간파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니 있다. 67년생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올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 79년생 자연스러워야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다. 91년생 신속성보다 완벽성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03년생 먼 곳에서 온 정보가 이익을 부르리라. 행운의 숫자 : 04, 54
40년생 확실히 변화시켜야만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52년생 과정상의 괴로움은 보이나 결실은 달콤하리라. 64년생 일을 마치고 나서야 근본적인 연유를 깨닫게 되리라. 76년생 확인란 잘 해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88년생 조건을 구비해야 추진력을 갖게 된다. 00년생 노출되지 않은 부분에 맹점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5, 77	41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빨리 철회할수록 이익이 아니라. 53년생 임시적인 조처에 그친다면 큰 손해를 불러들인다. 65년생 합리적으로 안배해야만 만사가 형통하리라. 77년생 도모하던 비는 이혼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89년생 알찬 성취이니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01년생 이루어지고 있다. 행운의 숫자 : 27, 81	44년생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인내로써 일관해야 할 처지이다. 56년생 참신한 발상과 의식의 전환이 시급한 때가 되었다. 68년생 형식을 멀리하고 실사구시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80년생 순리에 역행한다면 패배가 예정된 것이다. 92년생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것이 오히려 병이로다. 04년생 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41, 91
42년생 확실히 변화시켜야만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52년생 과정상의 괴로움은 보이나 결실은 달콤하리라. 64년생 일을 마치고 나서야 근본적인 연유를 깨닫게 되리라. 76년생 확인란 잘 해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88년생 조건을 구비해야 추진력을 갖게 된다. 00년생 노출되지 않은 부분에 맹점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5, 77	43년생 숙원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55년생 핵심 가치를 간파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니 있다. 67년생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올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 79년생 자연스러워야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다. 91년생 신속성보다 완벽성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03년생 먼 곳에서 온 정보가 이익을 부르리라. 행운의 숫자 : 04, 54	45년생 복합적이거나 다기능의 선택이 용이하다. 57년생 때가 되면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69년생 단번에 성과가 나타나지는 힘들겠다. 81년생 요령을 활용하다 보면 참신한 방법들을 연쇄적으로 터득하게 된다. 93년생 선택하기에 애매한 조건이 주어지리라. 05년생 피하려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1, 65
44년생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인내로써 일관해야 할 처지이다. 56년생 참신한 발상과 의식의 전환이 시급한 때가 되었다. 68년생 형식을 멀리하고 실사구시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80년생 순리에 역행한다면 패배가 예정된 것이다. 92년생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것이 오히려 병이로다. 04년생 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41, 91	45년생 복합적이거나 다기능의 선택이 용이하다. 57년생 때가 되면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69년생 단번에 성과가 나타나지는 힘들겠다. 81년생 요령을 활용하다 보면 참신한 방법들을 연쇄적으로 터득하게 된다. 93년생 선택하기에 애매한 조건이 주어지리라. 05년생 피하려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1, 65	46년생 사세의 가닥을 쳐야할 결정적인 시기이니라. 58년생 의무적인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만 한다. 70년생 이론이나 예언이 아니라 실황에 따르는 것이 낫겠다. 82년생 집착과 미련을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94년생 하나가 아니라 기능으로써 작용하게 될 것이다. 06년생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24, 76
46년생 사세의 가닥을 쳐야할 결정적인 시기이니라. 58년생 의무적인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만 한다. 70년생 이론이나 예언이 아니라 실황에 따르는 것이 낫겠다. 82년생 집착과 미련을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94년생 하나가 아니라 기능으로써 작용하게 될 것이다. 06년생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24, 76	47년생 백 마디의 말보다 한번 보여주는 것이 낫다. 59년생 부작용의 원인이 해소되어야 생산적으로 전환된다. 71년생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 용기를 갖고 임하라. 83년생 백해무익한 것에 대한 청산은 빠른수록 좋다. 95년생 현실 여건에 착실히 순응하는 것이 최상책이라 할 만하다. 07년생 생을 끝낼 때 걸려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6, 60	